

시진핑 2기 중국 경제의 키맨 ‘리우허(劉鶴)’

사동철 수석연구원, 동향분석센터 (dsa@posri.re.kr)

목차

1. 막후에서 경제 권력의 무대 전면으로
2. 리우허는 누구인가
3. 리우허가 이끄는 중국 경제정책의 중점 방향
4. 리우허의 경제정책 향후 전망
5.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시진핑 집권2기('18~'22년) 중국의 경제정책을 총괄 주도할 인물로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을 맡았던 리우허가 경제부총리에 발탁됨
 - 시진핑의 50년知己이자腹心인 리우허는 막후에서 시진핑의 경제정책 및 개혁방안(시코노믹스)을 설계한 경제 브레인으로 향후 중국경제의 핵심인물임
- 리우허의 시진핑 2기 핵심 경제정책 방향은 ①질적 성장, ②공급측 구조개혁, ③3대 과제(금융리스크/빈곤/환경오염) 해결, ④대외개방 가속화임
 - 기존의 투자와 수출 주도의 경제에서 소비 주도의 성장 방식으로 확실하게 전환하여 지속 가능한 '질적 성장'을 강하게 추진
 - 공급측 구조개혁은 과잉설비 감축 등 기존의 양적 구조조정에서 향후 기업의 부채 감소 및 인수합병 통한 경쟁력 제고 등 산업구조 고도화에 초점
 -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 강화 및 시장의 조절 역할 강조, 민간 기업의 빈곤 퇴치 참여 장려, 기업의 자발적 환경기술 투자 및 배출기준 준수 강조
 -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국제협력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구축해 외자유치(引進來)와 해외투자(走出去)를 적극 추진하고, 자유무역지대도 확대
- 시진핑의 절대 신임을 받는 최측근으로서 리우허는 막강한 권한과 추진력을 확보하고 구상하는 경제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행할 것으로 전망
 - 시진핑 집권 2기에는 막후에 있던 리우허가 힘을 받아 전면에 나서 중국경제를 이끌고 간다는 점에서 주요 정책이 힘을 받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금융경색 발생, 경제성장 둔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음
- 리우허의 중국 경제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면 기회 요인과 더불어 리스크로 작용해 우리 경제에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음
 - 기회 측면에서는 중국의 질적 성장 기회를 잘 활용하면 환경, 신흥 전략산업 등에서 중국 내 비즈니스 기회가 늘어날 수 있음
 -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로 한국과 중국의 주력기업들 간 격차가 크게 줄고, 중국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면 우리기업과의 글로벌 경쟁 격화가 예상됨
 - 중국에 진출한 우리 현지 법인들도 로컬 업체의 강력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며, 심지어 우리 내수 시장도 중국업체의 공략 리스크에 크게 노출될 것임

1. 막후에서 경제 권력의 무대 전면으로

- 리우허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이 지난 3월 전인대에서 시진핑 집권 2기 중국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원 경제담당 부총리에 발탁됨
 - 중앙재경영도소조(中央財經領導小組)는 조장이 시진핑이며, 중국공산당 내 최고 지도부인 25명의 정치국원들이 경제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당내 최고 기구
 - 리우허는 시진핑 집권 이후 중앙재경영도소조의 주임으로 시진핑의 경제정책을 막후에서 보좌하고 추진해온 시진핑의 '경제 브레인'으로 알려짐
- 리우허는 시진핑의 절대 신뢰 속에서 시진핑 집권 2기에는 전면에 나서 중국의 실질적인 경제사령탑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 리우허가 직제상 리커창 총리 아래 4명의 부총리 중 한 명이지만, 경제정책 관련해선 총리보다 강력한 '실세' 부총리가 될 것으로 전망됨(The Economist)
 - ※ 중국의 경제정책은 국무원 총리가 관장해왔으나 리우허 부총리에게로 사실상 경제 관할권이 넘어가면서 리커창 총리의 향후 입지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 지난해 11월 시진핑의 지시로 공식 출범한 '금융안정발전위원회'의 주임에도 리우허 부총리가 임명되어 금융산업 관리·감독까지 총괄하게 됨
 - ※ 금융안정발전위원회는 인민은행,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등 이른바 '1행 2회'를 총괄하는 중국의 슈퍼금융기구

〈리우허(劉鶴) 부총리의 학력과 약력〉

	학력	• 중국 인민대 산업경제학 전공 • 중국 인민대 산업경제학 석사 • 미국 세턴홀대 경영학 석사(MBA) •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행정학 석사
	주요 경력	•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연구원(1986~1987) • 국가계획위원회 부국장(1987~1998) •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2003~2013)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2013~2018) • 중앙정치국 위원(2017~현재) • 국무원 경제부총리(2018~현재) • 금융안정발전위원회 주임(2018~현재)

자료: 언론보도 종합

2. 리우허는 누구인가

○ 시진핑 주석의 50년 知己이면서 복심(腹心)이라 할 수 있는 최측근으로 시진핑의 절대 신임을 받고 운명을 같이하는 핵심 측근

- 1952년 베이징 태생인 리우허는 시진핑과 함께 중국 공산당 원로 자제 그룹인 '태자당(太子黨)' 출신으로 태자당 자녀들이 다닌 베이징 101중학교 동창생이며,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농촌에 가서 하방(下放)생활을 경험한 공통점이 있음
- 리우허는 시진핑이 18차 당대회에서 총서기에 오르면서 당 중앙위원이 됐고, 19차 당대회에선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했으며, 이번에 경제부총리로 선임되면서 고속 승진을 거듭함
- 리우허는 시진핑의 해외시찰이나 지역순방 때 수차례 동행하고 외국 정상과의 회담 시 배석해왔으며, 시진핑의 모든 경제 관련 연설문 초안을 작성
 - ※ 시진핑이 2013년 5월 방중한 톰 도널런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리우허를 "내게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고 소개해 각별한 신뢰감을 표시
- 리우허는 지난 1월 시진핑을 대신해서 중국 대표단을 이끌고 다보스포럼에 참석했고, 최근 통상분쟁 해결 모색을 위해 시진핑의 특사로 미국을 방문함

○ 리우허는 신창타이, 공급측 구조개혁, 일대일로 등 시진핑의 핵심 경제정책을 총괄 기획한 인물로 '시코노믹스(시진핑의 경제개혁 방안)'를 설계

- 리우허는 2014년에 중국경제가 고도 성장기를 지나 중고속의 안정성장 시대에 들어섰다는 새로운 상태를 뜻하는 신창타이(新常態)를 시진핑을 통해 이슈화했고, 과잉생산 능력 감축, 과도한 부채비율 해소 등의 공급측 개혁방안을 제시
- 시진핑의 역점사업으로 추진되는 '일대일로'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도 리우허가 산파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짐
 - ※ 2016년 5월 인민일보에 익명의 '권위인사'가 중국경제에 관해 인터뷰하면서 리코노믹스(리커창의 경제정책)를 비판했는데, 그 권위인사가 리우허로 밝혀짐
- 리우허는 8~10차까지 15년간 중국의 경제개발 5개년 정책 수립에 참여했으며, 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 수립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함
- 또한 리우허는 1998년에 중국의 주요 경제학자와 고위 경제 관료들의 모임인 '중국 경제학자 50인 논단(Chinese Economists 50 Forum)'을 조직해 중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오고 있음

- ※ 인민일보가 발행하는 시사지 환구인물(環球人物)은 리우허를 '중국경제의 핵심 브레인', '중국 신경체계계획의 총설계사', '미래 중국경제의 조타수' 등으로 묘사
- ※ 미국의 Brookings 연구소는 리우허를 '중국의 래리 서머스(전 미 재무장관 및 백악관 수석 경제고문)'로 평가

○ 리우허는 중국 지도부에서 보기 드문 하버드 케네디스쿨 출신 유학파로 미국과의 소통에 능해 미중 경제관계에서도 역할이 클 것으로 기대

- 리우허는 미국 세턴홀(Seton Hall)대 MBA 과정('92~'93년)과 하버드대 공공행정대학원 케네디스쿨('94~'95년)에서의 유학 경험과 능숙한 영어 구사, 그리고 풍부한 미국 정재계 인맥을 보유하고 있음
- ※ 미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리우허는 가이트너 재무장관과 정부 간 소통 채널로 활약했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당시 원자바오 총리 지시로 미국에서 하버드대 경제학자들을 만나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도 함
- 그는 미국에서의 유학 경험으로 서방경제 모델의 긍정적 측면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미국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 리우허는 1929년 대공황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비교해 쓴 논문으로 2014년에 중국 내 최고 권위의 경제학상인 '쑨예팡 경제학상'을 수상

3. 리우허가 이끄는 중국 경제정책의 중점 방향

- 리우허는 올해 시진핑을 대신해 참석한 다보스포럼 연설에서 시진핑 집권 2기의 경제정책 및 개혁의 핵심 방향을 제시
- 시진핑의 '경제정책 설계자(Economic-policy mastermind)'란 점에서 리우허의 포럼 연설 내용은 향후 경제정책의 주요 방향을 보여주고 있음
- 리우허의 향후 중국 경제정책은 ①질적 성장, ②공급측 구조개혁, ③3대 과제(금융리스크/빈곤/환경오염) 해결, ④대외개방 가속화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임

○ 첫째, 리우허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기존의 투자·수출 주도에서 소비 주도의 성장방식으로 전환하는 '질적 성장' 추진임

- 리우허는 중국경제가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U\$8천에서 U\$1만으로 가는 신시대로 진입하고 있으며, 현 단계에서는 양적 성장을 중시하는 고속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

- ※ 중국 정부는 올해 전인대에서 2018년 GDP 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와 동일한 6.5% 수준으로 제시했지만 성장률 수치보다는 질적 성장을 강조
- 중국은 질적 성장을 통해 2020년 전면적인 소강사회 실현과 2050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이라는 단계적 '중국몽' 달성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함
- ※ 소강(小康, 샤오강)사회는 국민 전체가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으며 보편적 복지를 누리는 물질적으로 안락한 중산층 사회를 의미

[참고] 두 개의 100년(兩個百年)으로 구분되는 '중국의 꿈(中國夢)'

- 첫 번째 100년의 꿈은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2021년까지 중국을 전면적인 소강사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
- 두 번째 100년의 꿈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 즈음에 중국을 부강하고 민주적이고 문명적이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현대화된 사회주의 강국으로 건설하는 것

○ 둘째, 리우허는 정부 주도의 공급측 구조개혁 심화를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와 지속 가능한 '질적 성장'을 달성하고자 함

- 리우허는 중국 경제발전의 최대 모순을 공급 체계가 수요 체계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로 진단하고, 공급측 구조개혁으로 고품질 경제발전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강조
- 공급측 구조개혁은 '삼거일강일보(三去一降一補)'를 통해 공급 체계의 적응력과 혁신성 및 효율성을 전면적으로 제고시키는 것이라고 언급

〈공급측 구조개혁의 주요 내용〉

	주요 내용
삼거(三去)	과잉생산능력, 부동산재고, 과도한 부채비율 등 세 가지를 해소 ✓ 2018년 생산능력 감축 목표: 철강 3,000만톤/석탄 1.5억톤 ✓ 좀비기업의 파산/채무정리 추진, 국유기업 개혁 등 구조조정
일강(一降)	감세 통한 기업의 비용부담 완화(연간 RMB 8,500억 비용 절감) ✓ 제조업과 교통운송업의 세율 인하 우선 실시 계획
일보(一補)	유효공급 확대 등 부족한 점을 보완

자료: 언론보도 종합

- 또한 중국경제는 질적 성장을 위해 과잉산업 정리와 함께 신흥전략산업 육성 및 민간 창업과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
 - 정부는 10대 신흥전략산업을 육성하고 2020년까지 신흥전략산업 규모를 RMB 60조, GDP 대비 15%(2017년 말 10%) 비중으로 확대 목표 수립
 - ※ 10대 신흥전략산업: ①차세대 IT, ②고정밀 수치제어 및 로봇, ③항공우주정비, ④해양장비 및 첨단기술 선박, ⑤선진 궤도교통 설비, ⑥에너지 절약 및 신에너지 자동차, ⑦전력설비, ⑧농업기계 정비, ⑨신소재, ⑩바이오헬스케어 및 의료기기
 -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민간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 셋째, 2020년까지 향후 3년 내에 경제발전 과정에서 드러난 3대 모순인 금융리스크, 빈곤, 환경오염 등의 해소를 중점 과제로 적시
- 리우허는 “금융리스크 예방이 최우선 과제”라며 “3년 내에 그림자금융 및 부채문제의 효과적 해소, 효율적 금융구조 위한 차입비율 통제와 금융업 관리감독 강화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해 금융리스크 관리를 우선시
 - ※ 중국 정부는 그림자금융과 부채리스크를 예측 가능한 위험으로 간과하다가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를 뜻하는 ‘회색코뿔소’로 보고 심각성을 인식
 - ※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중국 총부채 규모는 2017년 4분기 말 U\$32조 4000억으로 지난해 GDP 대비 255.7%를 차지(2016년말 255.3%)
 - 리우허는 초강력 금융감독기구인 금융안정발전위원회의 주임까지 맡아 금융리스크 방지 및 관리 강화에 최우선적으로 집중할 것으로 보임
 - 현재 중국의 절대빈곤 인구수가 3,000만 명 수준인데 2020년 소강사회 달성을 위해 절대빈곤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며 올해 1,000만 명의 빈곤해소가 목표임. 이를 위해 앞으로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적극 장려할 계획임
 - 환경오염 해소를 위해 오염물질 배출규제 강화 등 엄격한 환경보호 집행과 관리 강화, 그리고 친환경 산업 육성, 녹색 저탄소 발전을 적극 추진
- 넷째, 질적 성장의 도약을 위해 대외개방 확대와 가속화 방침을 표명
- 리우허는 포럼 연설에서 “올해 개혁개방 40주년을 맞는 중국은 국제사회가 예상하는 것 이상으로 전면적 대외개방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
 -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국제협력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구축해 외자유치(引進來)와 해외투자(走出去)를 적극 추진하고, 금융업을 중심으로 서비스업의 대외개방 확대, 자유무역항 건설 추진에도 주력할 방침

4. 리우허의 경제정책 향후 전망

○ 시진핑의 절대 신임을 받는 최측근으로서 막강한 권한과 추진력을 확보, 구상하는 경제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행할 것으로 전망

- 중국의 새 파워엘리트로 불리는 '시자권(習家軍)'의 강력한 지원과 협조도 리우허의 경제정책 추진에 힘을 보탬 것으로 예상

[참고] 중국의 새 파워엘리트, 시자권(習家軍)

- 시진핑이 2007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에 발탁되기 전까지 지방 근무 시절에 인연을 맺은 자신의 옛 부하들로 이뤄진 시진핑의 측근 인맥을 지칭함
- 시자권은 크게 시진핑의 고향(산시성) 인맥, 1985~2002년 시진핑이 근무했던 푸젠성 출신인 푸젠방(福建幫), 2002~2007년 시진핑의 저장성 서기 근무 시절의 측근과 부하들인 즈장신권(之江新軍)으로 구분됨
- 허리핑 국가발전개혁위원회(한국의 기재부 역할) 주임은 시 주석이 17년간 푸젠성 부서기·성장으로 있을 때 보좌한 측근으로 시진핑이 제창한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인사로 재연임됨
- 중산(鍾山) 현 상무부 부장도 통상교섭 전문가로 시 주석의 저장성 서기 시절 부성장으로 있었음

- 리우허의 강력한 추천을 받아 임명된 이강(易綱) 인민은행 총재는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까지 지냈으며 1997년부터 인민은행에서 21년 근무한 최고 금융전문가로 위안화의 IMF 통화바스켓 편입을 주도했었음

○ 시진핑 집권 2기에는 막후에 있던 리우허가 힘을 받아 전면에서 나서 중국경제를 이끌고 간다는 점에서 주요 정책이 힘을 받을 것으로 판단됨

- 질적 성장 정책은 앞으로 신도시화, 소비 및 서비스업 장려 등에 초점을 두게 되면서 중국경제가 더욱 소비 주도의 경제로 전환할 것으로 보임
- 공급측 개혁은 기존의 양적 구조조정에서 향후에는 기업의 부채 감소 및 인수합병 통한 경쟁력 제고 등 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강조해 성과를 보일 전망
-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강화하여 시장의 조절 역할을 강조하고, 민간 기업의 빈곤 퇴치 참여를 장려할 것이며, 기업의 환경기술 투자를 유도하고 자발적으로 배출기준을 준수하도록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일대일로 가속화를 통해 글로벌화를 적극 추진하고 자유무역구 확장 등을 통해 외국자본에 시장 개방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

〈중국의 주요 경제정책 전망〉

	시진핑 1기	시진핑 2기
질적 성장	투자·수출 주도에서 소비 주도의 경제로 전환 추진	신도시화 추진, 자동차 대중화 등을 통한 소비 주도의 경제로 전환
공급측 개혁	과잉설비 능력 감축, 가격 안정 등 양적 구조조정에 치중	좀비기업 퇴출, 기업의 수익성 제고 및 경쟁력 제고 등 질적 수준 제고에 초점
3대 과제	금융리스크: 지방정부 부채 감축 빈곤: 정부 주도의 빈곤퇴치 환경오염: 감시와 규제 강화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 강화 민간 기업의 빈곤퇴치 참여 강조 자발적인 환경기술 강화 및 기준 준수
대외 개방	일대일로 주변국 중심 외국인투자 진입 규제 완화	일대일로 가속화 통한 글로벌화 추진 자유무역시험구 내 외자 참여 확대

저자 작성

○ 그러나 막후 ‘책사’ 역할만 해온 리우허가 정책집행자로서 업무를 매끄럽게 수행하지 못할 경우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음

- 향후 질적 성장 목표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무리하게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면 디레버리징이 급격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미·중간 무역분쟁이 장기화되고 미 금리인상이 맞물릴 경우 금융경색 발생과 실물경기 위축 우려가 있음
- 중국정부가 양적 성장보다 금융리스크 억제, 빈곤퇴치 및 환경오염에 집중함으로써 성장률이 둔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일대일로도 너무 강하게 추진하면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유무역구가 급증하면 중국경제의 외부 리스크 노출도 커지게 됨

5. 시사점

○ 리우허가 주도하는 중국 경제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면 기회 요인과 더불어 리스크로 작용하여 우리 경제에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음

- 기회측면에서는 중국의 질적 성장 기회를 활용하고 환경, 신흥 전략산업 등 분야에서 중국 내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모색할 수 있음
- 하지만 중국의 제조업 첨단화, 고부가가치화 및 정부 주도의 산업구조 고도화로 한국과 중국의 주력기업들 간 격차가 크게 줄어들 수 있음
- 또한 중국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으로 중국 기업의 비효율성이 제거되고 경쟁력이 강화되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기업과의 경쟁 격화가 예상됨
- 아울러 중국에 진출한 우리 현지 법인들도 로컬 업체의 강력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며, 심지어 우리 내수 시장도 중국업체의 공략 리스크에 크게 노출될 것임

이 자료에 나타난 내용은 포스코경영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보고서/논문]

시진핑 집권2기 개막 ‘中國夢’ 달성 앞당길까, Cover Story, 포스코경영연구원, Chindia plus vol. 127, Jan/Feb 2018

이현태 외 3인, “중국 시진핑 집권 2기 경제운영 전망: 2018년 양회(兩會)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늘의 세계경제 18-12호, 2018

이치훈, 이상훈, “2018년 전인대 주요 정책 평가”, 국제금융센터, Policy Brief, 2018.3.5

中国:『習近平一强体制』が本格始動へ～国家副主席に王岐山氏、副首相に經濟ブレーンの劉鶴氏, 大和總研, 2018.3.20

Barry Naughton, “Economic Policy in the Aftermath of the 19th Party Congress”, China Leadership Monitor, Hoover Institution, Stanford University, 2018.1.23

[서적]

유상철, *2035 황제의 길*, 메디치, 2018

[언론]

China's Economic Policy, <https://www.youtube.com/watch?v=M1i6Lrnkvsc>, 2018.1.24

“China's President Xi Jinping designates some sidekicks”, The Economist, 2018.3.22

Lucy Hornby and Tom Mitchell, “Xi hands powerful economic role to leading fiscal adviser”, Financial Times, 2018.3.20

Tom Mitchell, “Liu He, the man in charge of China's economy”, Financial Times, 2018.3.23

Xie Yu and Zhou Xin, “Vice-Premier Liu He set to lead China's new economic team as government line-up finalized”, South China Morning Post, 2018.3.20

Zhou Xin, “Liu He: China's new one-man debt bomb disposal unit”, South China Morning Post, 2018.3.19

Alexandra Stevenson, “Xi taps Harvard-educated adviser to tighten grip on China's economy”, The New York Times, 2018.3.19

오광진, “시진핑 장기집권 위한 지도부 완비...미국통 경제라인”, 조선일보, 2018.3.19

외 다수